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결과

올해로 22화를 맞은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의욕을 진작시키고자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 논문과 우수 논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올해에도 선정위원회에서는 국토정책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논문 1편, 우수 논문 4편을 선정하였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김규희 박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 대학원 부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배진희 이재수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상금 100만 원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표희진 구형수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이정은 박윤미 김민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심사평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김규희, 박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요인을 탐구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분포와 거주자 특성을 분석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로 다양한 차별 및 배제에 대한 경험을 청취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관례적인 접근법이었던 분양과 임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임대 유형별로 상이한 거주민의 경험과 인식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여, 이 연구를 수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 혼합정책의 다면성과 다원성을 강조하는 이 연구는, 향후의 사회적 혼합논의를 한층 생산적인 방향으로 안내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배진희, 이재수의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는 주택금융정책의 주택시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근의 주택시장 정책에서는 금융과 조세 등 소프트(soft)한 방식의 수단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정책의 주택시장 효과를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정밀하게 진행한 학술연구가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진행된 금융정책에 대하여 서울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그 정책효과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도입된 금융정책은 하위 지역별 효과 그리고 자산 유형에 따라 그 정책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정책의 부작용과 더불어 그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부각하여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박진백의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진행되었던 학술연구의 가정인 시간불변적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간가변적 관계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서 아쉬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학술적 연구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조화가 최근에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사한 시장 그리고 유사한 상품 간의 동조화가 진행되는 추세와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전세시장이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금융화를 강조하는 것은 흥미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표희진, 구형수의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분석”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위기상황 대응체계가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분석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점투자지역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가 112, 119 출동, 응급이송 각각을 분절적으로 다루면서 위급상황 대응자원의 수준만 고려하여 중점투자지역을 식별하는 것과 달리, 위기상황 대응체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간 시·공간적 연계 속에서 위급상황 대응체계 충족 실태를 평가하고, 수요(위급상황)와 공급(위급상황 대응자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점투자지역을 식별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관점 차이로 인해 위기상황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추가 공공자원의 투입만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와 달리, 수요 대비 공급 과다 지역의 적정규모화,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선별적 지원, 공간구조 개선과 연계한 효율적 운영전략 마련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생존과 직결되는 위급상황 대응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적 기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정은, 박윤미, 김민주의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고찰을 중심으로”는 축소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축소도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돋보인 연구이다. 이 연구는 지난 5년 동안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등 유사하지만 초점이 서로 다른 개념을 다룬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제목, 초록, 주요어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국내 학자들이 축소도시를 정의하고 진단하는 방식을 논리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형 축소도시에 맞는 개념적 정의와 현상적 진단을 통해 앞으로

국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논문이다. 학술적 기여뿐만 아니라 향후 축소도시 진단 및 지표개발, 유형화 등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에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4년 4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